

#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47호(98/11/20)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



The 3rd Human Rights Film Festival  
제3회 인권영화제

## 12월 1일 국가보안법 50년, 아태지역 연대 집회 개최

오는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치욕스런 날이기도 한 그날을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 캠페인 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50년을 맞아, 캠페인팀은 반세기 동안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온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국제단체와 아태지역의 단체들과의 연대집회를 통해 국제적 관심사이자 해결책임을 확인, 연대운동을 드높인다는 구상에서 각국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 일본, 호주, 인도 등의 나라에서는 공동집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들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등 9개국에 공동선언문에 참가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아태지역 9개국 단체들 참여 예정

국내 집회는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서'란 주제로 12월 1일 정오 여의도공원에 집결하여 KBS-한나라당 당사-국민회의 당사-장기신용은행으로 국가보안법 장례행진을 갖게 됩니다. 이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는 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연대 메시지와 아태지역 인권단체들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날 집회는 그동안 공동캠페인을 책임졌던 사랑방, 민변, 민가협을 비롯한 인권협, 민주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지식인연대 등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날 집회를 통해서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을 부각시켜 앞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50주년을 맞아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5회 정도에 걸쳐서 기획시리즈가 실리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대표적인 피해사례, 법무부장관 인터뷰 등이 실립니다.

### 사랑방, 국가보안법 2가지 책자 발간

한편, 사랑방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 50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12월 1일 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중적인 국가보안법 책자 작업은 원고가 출판사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도서출판 사람생각을 경영하는 염규홍씨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현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의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는 이 책자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자료집은 91년 5월 31일 이후 조직사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사건을 조항별 적용 분포, 인권침해 유형별 분포 등을 분석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 자료집은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집도 12월 1일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 사 / 업 / 보 / 고

(98년 10월 셋째주부터 11월 둘째주까지)

\*\*\*\*\*

## 행형 보고서 12월초 공개 발표 마무리 집필작업 활기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행형 설문조사 작업도 마무리 작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행형연구팀은 11월 2일 2차 모임을 갖고, 집필할 분야를 나눴으며, 이에 따라 각자는 23일까지 원고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후 검토작업을 거쳐서 12월 3일경 최종안을 정리 완료하고 이후 보고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각 항목별로 국제적인 기준과 현행 행형법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설문지에서 나타난 현상을 정리한 뒤 각 영역별 개선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고서 집필에는 이승호 교수, 김선수, 도재형, 박찬운 변호사, 손민영, 최정학, 엄주현, 유해정씨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는 교도소 일반(수감생활에서의 차별, 누진처우, 분류, 기타), 규율 및 징벌/불복신청제도, 작업 및 작업상여금, 외부와의 교통(면회, 편지, 금품의 취급), 사방 외 생활(운동·스포츠 및 오락, 종교), 여성 재소자, 의료, 수용시설, 이감, 전방, 사방내 생활(신체 위생, 의류 및 침구, 일과, 식사), 도서·신문 열독, 집필 등입니다.

이 보고서는 데이터도 가장 많고 설문 항목도 포괄적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조사 보고서 중 가장 충실한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청송, 강릉, 대구 등지의 교도

소에서 책과 의류 등 외부에서 반입하는 일체의 물건을 금한 몇 군데의 교도소가 문제되어 이에 대해서 하루소식과 한겨레신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법무부가 이를 시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청소년 인권교재 인권주간에 출판

오랫동안 준비해온 청소년인권교재가 12월 세계인권선언주간에 발간됩니다. '인권을 호출하고 싶다'란 제목으로 나올 이 책자는 감수자들의 감수를 거치고, 삽화가 완성되어 도서출판 사람생각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책자는 인권의 개념, 역사 등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계몽을 통해서 재미있게 익히고, 매 항목마다 관련 정보들을 정리하여서 체계적인 학습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상황에서 그간 인권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구성한 이 책자의 발간으로 인권교육이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교육실에서는 이후에도 어린이용 인권교재 등을 계속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원건설 보고서도 완성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범죄보고서』 사업이 11월 6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사랑방을 비롯한 15개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이 함께 결성한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던 본 사업은 철거단체 등에서 자료를 모으고, 이를 사랑방에서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90년 다원이 설립된

이후 철거현장에서 저지른 범죄를 폭행, 성폭행, 주거침입, 재산손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유린, 살인 등 8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철거에 대한 인권적 관점, 철거민의 현재, 결론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총 160쪽에 이르는 이 자료집은 지난 7일 김수환 추기경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전달되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를 배포하여 이후 국회 내에서 다원건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기초자료 정리작업은 자원봉사자인 이미애씨가 수고하였습니다. 책자는 권당 5천원씩에 판매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민간감시단 난항

지난 달에 사회복지시설 민간감시단 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고드렸지만, 이 일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간 논의를 거쳐서 오는 12월 4일 (가칭)사회복지시설 인권옹호단 발족식을 가질 예정으로 이에 맞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충분치 못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와 개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랑방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사협회 등만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가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에 애초 목적하던 바 인권옹호단의 역할을 해내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와 개인 등이 전체가 모여서 참가의사와 역할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간담회를 갖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의 일정대로는 인권옹호단이 발족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중으로 '장애인입소시설 운영개혁단'을 발족해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개선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방에서도 사무국장이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 국가인권기구, 28일 당정협의를 고비

국가인권기구 설치 법안을 두고 법무부와 민간단체 공추위 간의 밀고당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애초의 법안에서 위상을 특수법인을 고집하면서 단지 이사회 구조만 바꾸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정치국민회의 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법'이란 이름으로 성안되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명령권이 없는 것을 빼고는 공추위 안과 유사합니다. 국민회의는 국가기구로 하고, 권한에서 구체명령권을 이후에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안입니다.

그간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던 공추위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무부와 새정치국민회의간의 당정협의를 공추위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추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갖는 국가인권기구가 되어야한다는 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쨌건 오는 12월 10일에 맞추어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법률로 공포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이대로 가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공추위는 6일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공청회를 가졌고, 언론로비팀, 대

정부대국회 대책팀, 국제협력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획

인권하루소식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을 이해하고,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총 17회에 걸쳐서 선언의 조문을 해설하고, 결론적으로 세계인권선언에 빠진 부분을 중심으로 짚어볼 계획입니다. 이 기획에는 이동수 화백이 삽화를 그리고, 이창조, 이주영 기자, 배경내, 류은숙씨 등 6인이 집필자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소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무국회의에서 1주일치의 하루소식 기사중 가장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하루소식 기사에 대한 사무국 성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소식 기자들에게도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 사무국-임시조직소위 구성

사무국에서는 임시조직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 사업방향, 재정 등 사랑방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영화제가 끝나는 12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사랑방의 나아갈 길, 조직문제 등에 대해서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표와 사무국장, 류은숙, 이창조, 최은아씨로 임시조직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방향, 조직,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제반 상황들

이 기존의 인권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랑방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사업내용들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또, 조직도 지금의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후 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많아진 인원과 사업내용에 걸맞는 재정확보 방안도 고민꺼리입니다.

이런 토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모습의 사랑방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될 것입니다.

### 인권협, 인권선언 토론회등 결의

인권협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민가협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유가협을 지지방문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8일 집행위원들이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제3회 인권영화제 준비과정에 대해 보고하고, 각 단체에서 후원회원을 모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각 단체는 분담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 인권영화제 기간 중 열리는 '토론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8일 오후 4시부터, 동국대)를 인권협 주최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국가보안법 50주년을 맞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각 단체가 적극 참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유엔인권위원회에 파견할 인권협 대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문제를 잘 알고, 영어에도 능통한 사람으로 1인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

한 비용은 국제인권옹호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적당한 후보자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가협에서는 10회를 맞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공연을 12월 1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고, 12월 10일에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목요일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민운동지원기금에 프로젝트 선정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제출한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랑방이 제출한 프로젝트는 'IMF와 인권'으로 IMF 체제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 유형화하여 이후 사회권 운동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이 고민하는 본격적인 사회권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작업 등이 이 프로젝트의 주내용입니다.

시민운동지원기금에 신청한 액수는 5백만원이었으나, 경제위기로 액수로 떨어져 지원 총액은 4백만원이며, 내년 1월 프로젝트 계약시 4/5를 받고, 이후 사업 종결시에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독일 재분배 재단에 중간 보고서를 보내서 지원금의 1/3을 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분배 재단에서 돈이 들어오면 최악의 재정상황을 타개하기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사동 단독 대표에 유해정씨

자원봉사자 모임인 인사동은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토

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인권조약을 하나씩 훑어나갈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는 11명으로 영화제에 결합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앞으로 인사동에 결합될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사동의 공동대표였던 이영태씨가 군문제 때문에 공동대표를 사임하고, 유해정씨(행형사업)가 단독 대표를 맡았습니다. 교육담당은 김현정씨가 맡고 있습니다.

□ 서대표님 집들이가 13일 밤새도록 열렸습니다. 사무실 뒷편에 아남아파트에 위치한 집의 작은 방을 집무실로 명명하고, 서대표님은 굳이 집무실 개소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건 이 행사에는 사무국 상근자들과 자원봉사자, 백승헌, 차병직 변호사 등 25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 10월 24일에는 자료실 자원봉사중인 권태평 어머니의 자양동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집들이에는 서대표와 상근자,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 도서출판 사람생각의 대표인 <인권하루소식>초대 편집장이었던 염규홍씨를 사랑방 사무국의 편집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염씨는 본인이 설립한 출판사를 인권전문 출판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첫 작품으로 사랑방이 준비해왔던 인권교재와 국가보안법 책자를 내게 됩니다. 또, 이번 인권영화제 홍보물등을 도맡아서 편집, 인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편, 24일 첫 아들 염원의 첫돌이 인사동에서 열립니다.

□ 국가인권기구공추위에 실무자로 파견, 근무중인 배경내씨가 일본 오사카 휴라이츠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오사카에서 열리는 인권교육 심포지엄에 참가합니다.

애초 비용이 없어서 참가를 포기했다가 휴라이츠 측에서 교통비와 체류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돼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류은숙 인권교육실장이 내년 1월부터 5월 초까지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열리는 인권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열리는 데 꽤 권위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고, 국내에서는 변호사 몇분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김삼석씨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연말까지 휴직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연수기간중인 10월초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서 주위의 걱정을 사왔습니다.

□ 인사동 전 공동대표 이영태씨가 군에 입대하였다가 3일만에 귀가조치를 받아 퇴소하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17일 의정부로 입대하였으나, 8일 민중대회에서 경찰과 부딪혀 오른발목 인대가 늘어남에 따라 깊스를 한 상태에서 입대하였었습니다.

□ 미국에서 돌아온 박찬운 변호사가 7일 사랑방 상근자들을 대상으로 유학경험담과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변호사는 행형 보고서 사업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바쁜 중에 시간을 내주신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 서대표님이 16일 서강대 김녕교수가 진행하는 인권교양강좌의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김녕 교수는 '교회와 인권'이라는 교양강좌를 진행하면서 인권활동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 류은숙 교육실장은 11월 26일 열린 한국아동권리학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학회에서 만든 아동권리 지표에 대한 평가 심포지엄이었습니다.

□ 박래군 사무국장이 17일 안양 전진상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1기 인권학교 첫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첫 강의는 '한국 인권의 현실'이었습니다. 모두 7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인권학교 강의중 12월 15일 열리는 다섯 번째 강의는 '아동의 권리'이며 류은숙 교육실장이 참가하게 됩니다.

□ 교육부가 12월 10일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선언'에 대한 간담회(10일)와 공청회(21일)가 열렸습니다. 이에 류은숙 교육실장과 배경내씨가 참가하여 교육부안에 대해 매우 강도높은 비판을 가해서 참가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 인권영화제 2주 앞으로 총 35편을 6개 주제로 나눠 상영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행사로 열리는 제3회 인권영화제는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인권주간에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6개의 주제별로 35개 작품이 상영됩니다.

그러나, 지난 해와는 달리 후원회비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재정적으로 매우 곤란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IMF 상황에 따라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점과 언론매체들의 소극적인 보도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방 사무국에서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원을 개별적으로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화제의 성사를 위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구좌: (국민) 822-21-0276-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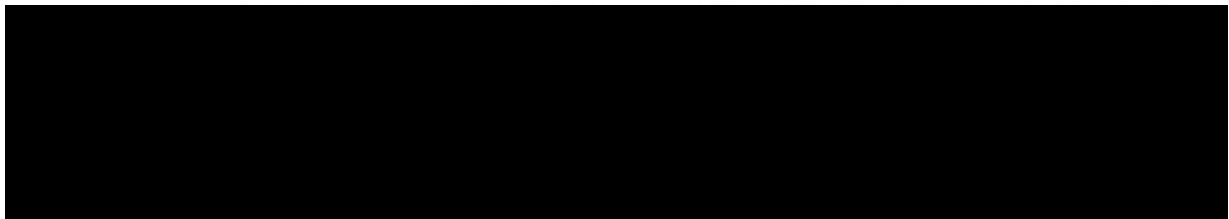
예금주 서준식

**98년 10월 재정보고**  
(98년 10월 16일 - 11월 10일)

**전기이월: -4,597,053원**


수 입		지 출	
회비	1,907,600	활동비	3,935,000
구독료	2,241,700	발송비	689,740
사업수익		사무비품	963,840
자료복사	307,190	사무실유지	888,580
강연	70,000	자료구입	45,000
기타	1,024,337	식대(야근)	98,657
후원금	30,000	전화요금	980,489
대금변제	1,200,000	사무기기	139,000
		복사비	240,920
		기타	65,900
<b>수입총액:</b>	<b>6,780,827원</b>	<b>지출총액:</b>	<b>8,047,126원</b>
<b>최종결산:</b>	<b>-5,863,352원</b>		

**<10월 자문·운영위원 회비 >(가나다 순)**



◆ 10월 수입 내역중 기타부분은 지난 10월 국가인권기구공추위와 인권영화제 팀이 쓴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을 합한 것입니다.

◆ 이번 겨울은 더욱 춥다고 하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98년 마무리 잘하세요.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